나무, 삶의 나이테를 더하다

전남대, 내년 5월까지 기획전
문갑·경대 등 목재유물 130점

한옥의 사랑방은 남성이 거주하는 활동 공간이었다.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가옥의 외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

사랑방에는 대체로 서안, 문갑, 사방탁자, 책장, 궤, 문방도구 등이 놓여 있다. 벽면에는 두루마리나 서한을 꽂아두는 고비가 걸려 있다.

사랑방의 생활가구나 도구는 나무로 제작된 게 대부분이다. 비단 사랑방의 가재도구뿐 아니라 안방의 장과 농, 경대 등도 나무를 재료로 만들었다.

나무는 가구나 도구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재료 등으로 이용되었다. 선사시대에는 불을 피우는 땔감으로, 이후에는 건축 부재의 중요한 기초로 쓰였다.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나무는 풍수해를 예방하거나 더위를 막아 그늘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존재이기도 했다. 1년마다 나이테를 만들어가는 양상은 매년 나이를 먹어가는 인간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나무를 주제로 한 유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전남대 박물관은 내년 5월 25일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나무, 삶의 나이테를 더하다' 기획전을 연다.

전남대가 개교 65주년 및 박물관 개관 60주년을 맞아 마련한 이번 전시는 소장 유물 중 목재 민속유물을 통해 우리 민족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또한 당시 실생활 현장에서 사용 중에 부서지거나 수집·보관 과정에서 훼손된 유물들을 수리 복원해 그 원형이 최초로 공개되는 자리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크게 사랑방, 안방, 부엌, 사당 등 우리 전통 가옥 구조를 기본으로 각 공간에서 사용됐던 민속유물 130여 점이 선보인다. 사랑방에 주로 놓였던 돈궤, 함, 목제등잔대와 안방의 빗접도 볼 수 있다. 특히 조선 후기 전남지역에서 사용된 개구멍반닫이, 장기판 등은 지난 시대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시골 출신 기성세대들에게 추억을 환기하는 공간 가운데 하나가 부엌이다. 이곳은 방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만들어 보관하는 난방과 취사의 공간이다. 난방을 위해 흙바닥을 그대로 사용한 온돌구조이기 때문에 부엌 물품들은 찬마루에 보관한다. 서민의 경우 부뚜막 위 시렁(선반)에 보관하기도 했다.

사당은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집안의 사당은 일반적으로 가묘(家廟)라고 한다. 신주를 모시고 제사 관련 물품을 보관했다.

물건의 길이나 무게를 측정했던 도구 도량형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길이나 양을 측정했지만 물물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정형화된 도량형이 쓰였다.

이와 함께 조선후기부터 20세기 초반 목제 민속유물뿐 아니라 전통 목가구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김생수 소목장의 작품들도 전시된다. 그의 작품은 목재 민속유물과 현대적 전승을 비교할 수 있는 계기를 줄 것으로 보인다.

조진선 전남대 박물관장은 "과거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유물들이 드리우는 그늘 밑에서 한걸음 멈춰 '빠름'만을 요구받은 현재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면서 묻은 삶의 나이테, 그 위에 전시를 관람하는 우리 삶의 나이테를 한 겹 더해 미래로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의 062-530-3583~5. /박성천기자 skypark@

개막작 오페라 '마술피리'…연극 등 206개 무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한국 설명회
힌터호이저 총예술감독

내년 7월 개최 '유럽 3대 음악축제'
2020년 100주년 조성진 출연 타진
한국인 대상 VIP관람 프로그램 운영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관계자들이 기자간담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효숙 WCN 대표, 헬가 라블-슈타들러 대표, 마커스 힌터호이저 총 예술감독.

"'탁월함의 중심'이 되는 것. 이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존립 이유이자 축제의 성공을 위해 내건 목표입니다. 또, 열기와 열정, 그리고 희열이 2018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세계적인 음악축제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음악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한국인들이 더욱 많이 찾아와 주기를 바랍니다."(마커스 힌터호이저 총 예술감독)

유럽 3대 음악 축제중 하나로 꼽히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관계자들이 지난 1일 한국을 찾아 설명회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여름에 열리는 페스티벌을 홍보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매년 7~8월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음악축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연주자, 성악가들이 모여 연극, 오페라, 관현악, 실내악 공연을 펼치는 종합예술 축제다. 매년 80여 개 국에서 20만명 이상의 관객이 모이고 있으며 2018년 축제는 7월 20일~8월 30일까지 오페라, 연극, 콘서트 등 총 206개의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된다. 개막작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로 마커스 힌터호이저 총 예술감독은 "마술피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현미경 같은 작품"이라며 "세상의 명과 암, 남과 여, 선과 악을 대칭적으로 비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마술피리'로 내년 축제의 포문을 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헬가 라블-슈타들러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방문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축제를 찾아와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커스 힌터호이저 총 예술감독은 "한국의 음악 수준이 굉장히 높다"며 "오는 2020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100주년을 위해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소프라노 빅토리아 여(여지원)를 초청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한국 설명회는 이번이 두 번째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거점을 둔 음악기획사 WCN(대표 송효숙)이 행사를 주최했다. WCN은 한국의 재능있는 신인 음악가들을 발굴해 국제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유럽을 중심으로 친선음악회도 개최하고 있다.

송효숙 WCN 대표는 "페스티벌 임원들을 초청해 한국에서 설명회를 갖게 됨으로써 오스트리아와 한국의 문화 교류는 물론 한국의 음악가와 애호가들이 페스티벌에 직접 참여하며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음악을 매개로 오스트리아와 한국의 문화적 교류가 견고해지고, 한국의 클래식 문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악기획사 WCN은 한국의 음악 애호가들을 위한 특별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내년에 열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공연 중 한국인들이 선호할 만한 공연을 2018년 8월1일부터 9일까지 7박9일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피아니스트 에브게니 키신 콘서트, 카우프만·도이치 리사이틀, 오페라 '마술피리', 오페라 '스페이드의 여왕',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를 VIP석에서 관람할 수 있다. 또, 여기에 백스테이지 투어, 지휘자 혹은 출연자와 대화하는 시간도 갖는다.

/서울=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오페라·뮤지컬…풍성한 '크리스마스 칸타타'

내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그라시아스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사진〉가 오는 5일 오후 3시 30분,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1막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제로 한 오페라, 2막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족 뮤지컬, 3막에서는 헨델의 '메시아' 중 'For Unto us a Child is Born', 'Glory to God in the Highest', 'Halleluja' 등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이자 러시아 공훈 예술가, 보리스 아발랸이 지휘를 맡는다.

지난 2000년에 창단된 그라시아스합창단은 2014 이탈리아 '리바델가르다 국제합창대회'에서 대상, 스위스 '몽트뢰 국제합창제'에서 1등상, 2015 독일 '마르크트오버도르프 국제합창제'에서 최고상(혼성 1등상) 및 특별상 등을 수상해 한국 합창단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수익금은 아이티와 아프리카 등 어려운 나라에서의 자선공연 및 국내 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에 사용된다.

티켓구매는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조기예매 시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의 1899-2199.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기다래지다'·'이보십시오'
국립국어원 표준어 등재

국립국어원은 기다랗게 되다를 뜻하는 동사 '기다래지다'와 듣는 이를 부를 때 쓰는 감탄사 '이보십시오'를 표준어로 등재했다고 3일 밝혔다.

'기다래지다'가 표준어로 등재됨에 따라 '거짓말을 한 피노키오의 코가 기다래졌다'라고 써도 된다. 또한 '이보십시오'도 표준어로 인정되면서 '이보세요', '이보쇼', '이봅시오', '이봐요' 등도 함께 표준어로 인정됐다.

'그것이 이미 된', '그것을 이미 한'이라는 뜻을 지닌 접두사 '기'와 노랫말을 고치거나 다시 짓다는 뜻을 지닌 명사 '개사'도 표준어가 됐다. '올라오다'라는 뜻에는 컴퓨터 통신망이나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 글이 게시되다 라는 뜻풀이도 추가됐다.

한편 '미망인'은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란 뜻으로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자를 이르는 말'로 설명됐지만, '남편을 여읜 여자'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이 당사자를 미망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례가 된다'는 각주도 함께 달렸다./박성천기자 skypark@